

미 증시, 파월 의장 발언에 안도하며 상승 파월 “인플레 압력이 크게 높아지지 않으면 금리인상은 없다”

미 증시 변화요인: APEC 회담 취소, 연준의 금리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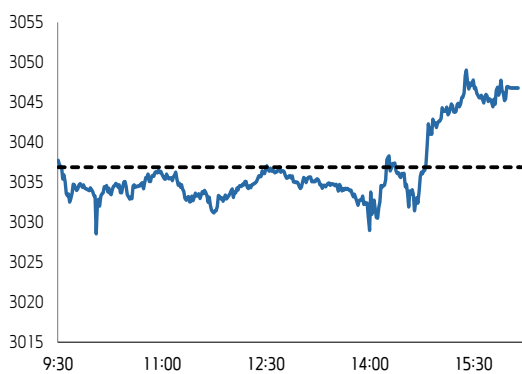
미 증시는 칠레가 APEC 정상회담 개최를 포기한다고 발표하자 하락폭을 확대하기도 했으나 FOMC 이후 상승 전환에 성공. 특히 시장 우려와 달리 2 명의 위원만이 금리 동결을 주장한 점이 긍정적 요인. 이런 가운데 파월 의장이 추가인하에 대해 거리를 둔 발언을 했으나,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과 인플레 압력이 높지 않으면 금리인상은 없다고 주장한 이후 상승폭 확대(다우 +0.43%, 나스닥 +0.33%, S&P500 +0.33%, 러셀 2000 -0.27%)

미 증시 장 초반 하락은 칠레가 APEC 정상회담 개최를 포기한다고 발표한 점이 부담. 시장에서는 1 차 미-중 무역 협상 체결 시기 지연 우려가 높다는 점이 부각되며 하락. 그러나 중국 정부가 마카오에서의 정상회담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낙폭이 제한. 이런 가운데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1 단계 합의는 잘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시간표에 맞춰서 마무리 할 것” 이라고 언급해 서명 지연 우려를 완화 시킨 점이 긍정적.

한편, 연준은 FOMC 를 통해 금리를 25bp 인하 한다고 발표. 성명서 내용중 ‘적절히 행동할 것’이라는 문구가 삭제되기는 했으나, 금리 동결을 주장한 위원이 로젠그렌과 에스더 조지 두명에 그치자 주식시장 상승 전환에 성공. 비록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거리를 둔 성명서였으나, 동결 주장 위원이 두 명에 그치자 추가인하 기대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오며 지수 상승 전환 요인으로 작용.

이어 파월 연준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투자, 수출, 제조업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으나, 소비지표는 견고해 경제는 완만하게 확장세를 지속할 것’ 이라며 경기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 더불어 “인플레가 상당히 오를 위험이 없어서 금리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라고 주장하자 상승폭이 확대. 그런 가운데 “정책 조정이 상당히 있었기에 시간을 두고 효과를 봐야 할 것” 이라고 즉각적인 추가 금리인하는 제한하는 주장도 했음. 금융시장은 추가 인하 기대를 이어가며, 주식시장은 상승, 국채금리는 하락, 달러화는 약세를 보임.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80.27	-0.59	홍콩항셱	26,667.71	-0.44
KOSDAQ	655.04	-0.50	영국	7,330.78	+0.34
DOW	27,186.69	+0.43	독일	12,910.23	-0.23
NASDAQ	8,303.98	+0.33	프랑스	5,765.87	+0.45
S&P 500	3,046.77	+0.33	스페인	9,284.50	-1.23
상하이종합	2,939.32	-0.50	그리스	875.73	+0.27
일본	22,843.12	-0.57	이탈리아	22,646.08	-0.1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페이스북, 애플 시간 외 2% 가까이 상승

GE(+11.47%)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급등 했다. 가민(+9.60%)도 실적 개선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움브렌드(-5.81%)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고 노드스트롬(-5.12%)은 UBS가 이익 둔화 우려로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의류 업종은 하락 했다. MCK(-8.44%)는 실적 발표 이후 하락했다. ABC(-3.40%) 등 여타 약국 체인점도 동반 하락 했다. 한편,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코노코필립스(-3.59%), EOG리소스(-3.05%), 엑손모빌(-1.05%)는 하락 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보면 예상을 상회한 결과를 내놓은 페이스북(-0.56%)과 애플(-0.01%)은 시간 외로 2% 가까이 상승 중이다. 이에 힘입어 알파벳(+0.00%), 아마존(+0.98%) 등 FANG 기업들도 시간 외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부진한 결과를 예상했던 스타벅스(+0.07%)는 기대를 상회한 결과를 내놓자 2.5% 상승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72%	대형 가치주 ETF(IVE)	+0.10%
에너지섹터 ETF(OIH)	-4.48%	중형 가치주 ETF(IWS)	-0.02%
소매업체 ETF(XRT)	-0.77%	소형 가치주 ETF(IWN)	-0.56%
금융섹터 ETF(XLF)	-0.07%	대형 성장주 ETF(VUG)	+0.56%
기술섹터 ETF(XLK)	+0.61%	중형 성장주 ETF(IWP)	+0.34%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10%	소형 성장주 ETF(IWO)	-0.09%
인터넷업체 ETF(FDN)	+0.82%	배당주 ETF(DVY)	-0.11%
리츠업체 ETF(XLRE)	+0.74%	신흥국 고배당 ETF(DEM)	+0.21%
주택건설업체 ETF(XHB)	+0.29%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48%
바이오섹터 ETF(IBB)	+0.12%	미국 국채 ETF(IEF)	+0.49%
헬스케어 ETF(XLV)	+0.56%	하이일드 ETF(JNK)	-0.13%
곡물 ETF(DBA)	+0.31%	물가연동채 ETF(TIP)	+0.37%
반도체 ETF(SMH)	+0.11%	Long/short ETF(BTAL)	+0.3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28.68	-2.12%	-1.98%	+3.07%
소재	368.78	-0.01%	+2.37%	+5.49%
산업재	668.93	+0.33%	+1.75%	+6.75%
경기소비재	954.41	+0.60%	+0.23%	+3.37%
필수소비재	628.60	+0.47%	-0.00%	+2.07%
헬스케어	1,097.02	+0.78%	+2.59%	+7.80%
금융	478.62	-0.14%	+1.09%	+7.24%
IT	1,468.97	+0.61%	+3.67%	+6.94%
커뮤니케이션	171.36	+0.19%	+0.37%	+4.92%
유틸리티	324.36	+0.86%	-1.04%	+0.34%
부동산	244.09	+0.62%	-1.66%	+1.7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제한적인 상승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0.15% MSCI 신흥 지수 ETF 는 0.44%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1,025 계약 순매수한 데 힘입어 1.25pt 상승한 276.9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65.4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이 금리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적절한 행동을 할 것’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파월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추가 인하를 위한 기준을 높여야 한다’ 라며 추가적인 인하를 제한하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금리 동결을 주장한 위원이 두명에 그쳤다는 점, 파월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라고 주장한 점등을 감안 여전히 추가 완화를 위한 문을 열어두었다는 평가가 이어져 미 증시가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이는 최근 매파적인 FOMC 에 대한 우려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던 점을 감안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파월 의장이 소비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오를 위험이 없다는 발언 후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한 점을 감안 외국인의 매수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 마감 후 페이스북과 애플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시간 외로 2% 가까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우호적이다. 물론 국제유가가 재고 증가로 하락하고, APEC 정상회담이 취소되며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불확실해 진 점 등은 부담을 줄 수 있어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3 분기 GDP 성장률 1.9%

미국 3 분기 GDP 성장률은 예상(1.7%)를 상회한 1.9%로 발표되었다. 기업투자가 부진 했으나, 소비와 주택, 정부지출 부문이 양호한 결과를 내놓은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10 월 ADP 민간 고용고용 보고서에서 고용자수는 전월(13.5 만건→9.3 만건) 보다 개선된 12.5 만건을 기록해 예상과 부합된 결과를 내놓았다. 물론 지난달 수치가 하향 조정된 점은 부담이었다.

10 월 스테이트 스트리트 지수는 전월(80.1) 보다 둔화된 79.2 로 발표돼 여전히 기준선(100.0)을 하회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지역이 67.6 으로 4.3p 둔화되었고, 아시아 지역은 85.6 으로 1.5p 둔화되었다 다만 유럽은 107.4 에서 132.9 로 크게 증가해 유럽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채금리 하락 전환

국제유가는 EIA 가 주간 원유재고 보고서를 통해 원유재고가 예상(+80 만 배럴)을 크게 상회한 570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하자 하락 했다. 더불어 APEC 정상회담이 취소되자 미-중 정상회담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된 점도 부담이 되었다. 한편, 미국 3 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양호했으나 기업투자가 부진하자 향후 소비 둔화 우려도 부담이었다.

달러화는 연준이 추가 금리인하에 신중할 것이라고 발표 했으나,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 압력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대체로 비록 추가 금리인하에 신중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금리인하 가능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추정한다.

국채금리는 양호한 경제지표와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며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파월 연준의장이 인플레이 압력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금리 인상은 없다고 발언한 점, 그리고 이번 금리인하에 반대한 위원이 두명에 그쳤다는 부분이 영향을 주며 하락 전환 했다.

금은 FOMC 를 앞두고 소폭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FOMC 를 기다리며 관망속에 혼조양상을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 0.65% 철근도 0.87%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5.06	-0.86	-1.63	Dollar Index	97.476	-0.22	-0.02
브렌트유	60.61	-1.59	-0.92	EUR/USD	1.1147	+0.31	+0.15
금	1,496.70	+0.40	+0.07	USD/JPY	108.86	-0.03	+0.16
은	17.867	+0.20	+1.63	GBP/USD	1.2904	+0.33	-0.06
알루미늄	1,760.00	+0.34	+1.73	USD/CHF	0.9895	-0.45	-0.11
전기동	5,908.00	-0.33	+0.46	AUD/USD	0.6898	+0.48	+0.66
아연	2,529.00	-0.59	+2.47	USD/CAD	1.3161	+0.57	+0.68
옥수수	390.75	+1.17	+0.77	USD/BRL	3.9848	-0.37	-1.28
밀	509.25	-0.44	-2.21	USD/CNH	7.0439	-0.31	-0.24
대두	930.50	-0.32	-1.87	USD/KRW	1168.10	+0.44	-0.37
커피	99.35	+0.40	+1.64	USD/KRW NDF1M	1165.46	-0.11	-0.39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775	-6.35	+1.08	스페인	0.279	-0.60	+3.20
한국	1.744	-2.20	+10.20	포르투갈	0.209	-1.60	+1.50
일본	-0.109	-0.70	+2.60	그리스	1.183	-4.10	-8.10
독일	-0.354	-0.30	+4.00	이탈리아	0.987	+0.10	+5.20